

17. '95 「生活改革」推進計劃

建設交通部 生活改革對策本部 1995. 4

I. 생활개혁 추진의 배경

□문민정부 출범이후 신한국창조를 위한 행정쇄신 및 규제완화등 과감한 개혁정책에 절대다수 국민들이 큰 지지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한편으로는

- “개혁의 혜택이 실제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”는 등 일부 아쉬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임.

□이는, 그동안의 개혁작업이 주로 ①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②신한국창조를 위한 기본틀을 만드는데 주력해온 결과이며

- 상대적으로 국민들의 일상주변에 산재하고 있는 각종 불안과 불편, 부담을 해소하는데 노력이 미흡했기 때문임.

□따라서, 국민들의 참여와 호응속에 개혁작업을 더욱 가속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

- 국민들이 개혁의 실체와 그 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생활주변의 고질적인 병폐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「생활개혁」을 중점 추진할 필요가 있음.

II. '95 생활개혁의 목표와 추진과제

1. 생활개혁의 목표

〈기본 목표〉

일반국민들이 일상적인 삶을 누리는데 있어서 과거에 비해 훨씬 더 「안정」되고 「편리」한 가운데 생활의 「만족」을 느낄 수 있는 상태로 개혁추진

2. 생활개혁 추진과제

- 3대 중점과제(각부처 공통)
 - 질서지키기
 - 쓰레기 줄이기
 - 고운말 쓰기
- 건설교통부 중점 추진과제
 - 교통수단 예약문화의 생활화
 - 외국인 방문객의 불편해소를 위한 도로표지판 정비

III. 건설교통부문 생활개혁 추진

1. 교통수단 예약문화의 생활화

가. 추진배경

- 예약문화가 정착되지 않아 정확한 수송수요예측이 곤란하며 이에 따라 수송수단 이용의 효율성 저하
- 대부분 교통수단의 승차권 매매가 당일 매표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로 이용자에게 불편 초래
 - 이용의 불확실성 증가로 대중교통수단 보다는 자가용 승용차 이용을 선호
- 항공편의 경우 예약후 미이용자(No Show)의 비율이 약 30%에 이르고 있어 이용자의 기회박탈 및 초과예약 모집등의 문제점 상존
- 철도(회원 제외), 연안여객선 및 고속버스의 경우 예약제도가 미비하여 수송수단의 접근성이 떨어짐.
- 대다수 국민의 경우 예약문화에 대한 생활화 의식이 결여되어 있음.

나. 추진방향

- 승차권 예매기간 확대 및 전화예약제 확대실시로 여객서비스 개선

- 첨단통신과 연계하여 교통수단에 대한 예약시스템 구축
- 국민의 교통불편 해소 및 각종 정보제공등 양질의 서비스 제공
- 국민의 예약문화 생활화를 위한 의식개혁운동 전개

다. 세부추진계획

- 고속버스(육상교통국, 고속버스조합, 정류장협회)
 - ① 왕복승차권 발매가 가능하도록
 - 서울, 부산, 대구등 6대 도시 터미널은 '95.6월말까지 전산망 구축 완료
 - 기타 터미널은 '95.12월말까지 구축
 - ② 전화예매제 추진
 - ③ '97년부터 역, 공항, 여행사등에서도 예매가 가능할 수 있도록 예약전산시스템 개발 추진
- 철도(철도청)
 - ① 철도회원(현재 25만명)을 추가로 모집하여 회원을 대상으로 한 전화예약제 지속 시행
 - ② 명절 승차권 예매제도 개선
 - 현 120일전 예매를 150~180일전 예매로 확대
 - * '96년도부터 연중 예매하는 방안 검토
 - ③ 평일 승차권 예매제 개선
 - 철도회원이 PC통신을 이용하거나 가정이나 직장에서 예약할 수 있도록 '96 예산 반영 추진
- 항공(항공국, 한국공항공단, 항공진흥협회)
 - ① 국내선 항공권 예약제도 개선추진
 - 신용카드 예약제도의 도입
 - 신용카드 예약시 항공권 구입기한(현행 1일~4일)을 폐지
 - 신용카드 예약후 항공권 미구입자에게는 취소 수수료 징수(요금의 10%~30% 까지)
 - 일반 예약제도의 개선

- 항공권 구입기한을 현행 탑승일 1~4일전까지를 예약후 1~3일까지로 개선
- 탑승취소 수수료율 부과기간조정 및 수수료율 상향조정
 - 출발 3시간 이후에서 출발 2일전까지 취소수수료율을 부과
 - 탑승취소 수수료율을 10~20%에서 10~30%로 상향 조정
- 여객선(해운항만청)
 - ① (주)세모에서 운항중인 9개 항로 21척의 선박을 대상으로 예약제 실시 추진
 - 항로구간: 부산~여수, 부산~장승포, 제주~목포, 인천~백령도 등
- 공통사항:국민의식 개혁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
 - ① 협회, 단체, 기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한 교육, 간담회, 캠페인 활동 전개(육상교통국, 항공국, 철도청, 해운항만청, 한국공항공단, 고속버스조합)
 - ② 공·항만, 역, 터미널, 고속도로 전광판을 이용한 자막 홍보 및 구내방송 홍보 (철도청, 해운항만청, 한국도로공사, 한국공항공단, 육상교통국)
 - ③ 공·항만, 역, 터미널 및 수송수단에 홍보물 제작 및 비치 (철도청, 해운항만청, 한국공항공단, 고속버스조합)
 - ④ 공문서 상·하단에 「예약문화 생활화」 표기(공통)
 - ⑤ 전화대기 신호음에 「예약문화 생활화」관련 음성녹화 재생 등 (총무과, 각기관 및 단체)

2. 외국인 방문객의 불편해소를 위한 도로표지판 정비

가. 추진배경

-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이 교통이용불편을 가장 큰 불편사항으로 보고 있으며 그중 도로표지판이 부적절하게 표시되거나 목적지 안내가 미비하여 개별여행이 곤란함을 제기
 - 한국관광공사의 설문조사결과 도로표지판과 관광지도를 활용하여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외국인의 경우 46%, 내국인의 경우 33%로 나타남.
- 안내 지명표시의 연계성 결여, 현재 지점 안내표가 미비 및 영문표기의 통일성이 결여되거나 영문글자가 작아 식별이 곤란

- 우리나라 관광객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동남아국가 방문객의 이용편의를 위한 한자표시 검토 필요

나. 추진방향

- 그동안 언론, 학·관계등 전문가에 의해 문제점으로 제기된 사항을 중심으로 도로표지판 개선방안에 대한 학술용역을 시행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이용자측면에서 도로표지판을 개선·정비

다. 세부추진계획

- 중점 개선내용
 - 안내지명의 연계성 확보
 - 영문표기의 용례집 발간
 - 사설표지의 설치 및 관리지침 제정
 - 도로표지판 규격의 조정
 - 주요 관광지의 한자 병기방안 등
- 추진일정
 - 도로표지판 개선방안용역 추진('95. 4~8월)
 - 도로표지규칙 개정('95. 10월)
 - 개선 표지판 시범설치구간 지정 및 설치
 - 국도 1호선(서울~천안)
 - 국도 3호선(서울~충주)
 - 국도 42호선(인천~수원)
 - 국도 46호선(서울~춘천)